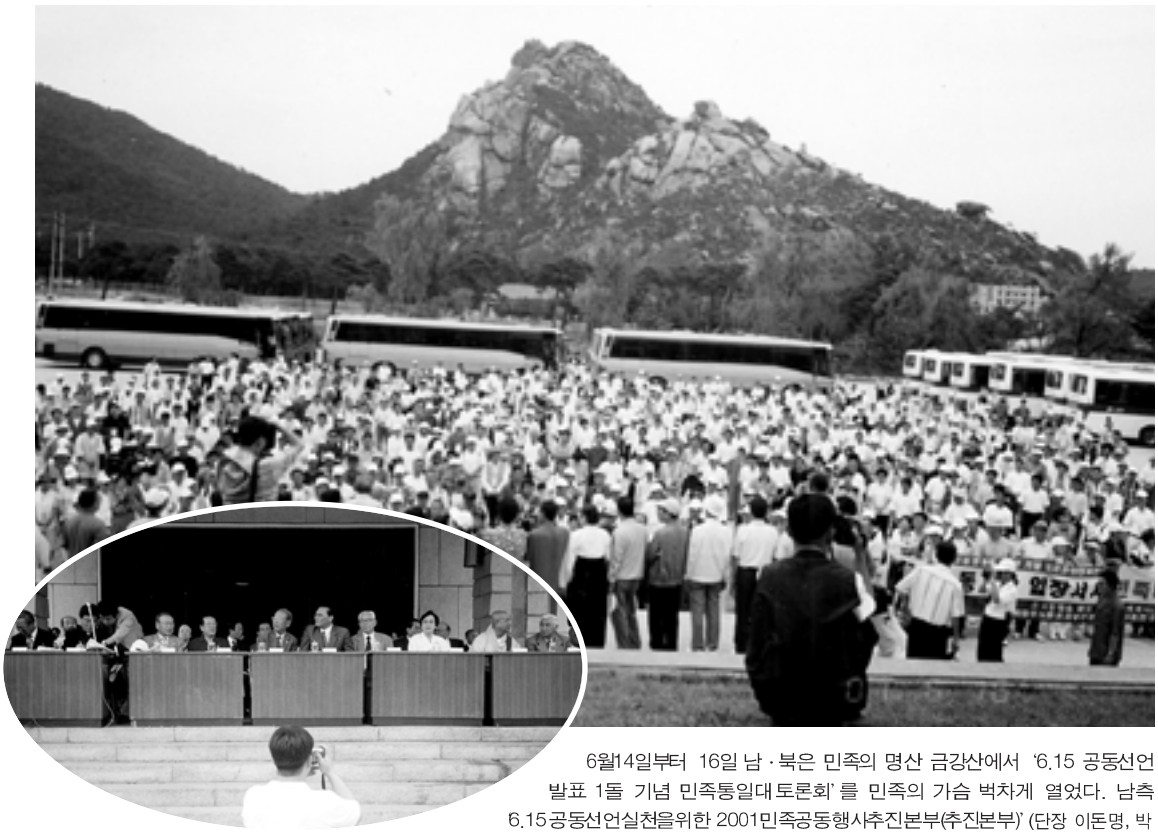
통권 117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1. 7. 11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열려



6월14일부터 16일 남·북은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민족의 가슴 벅차게 열었다. 남측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추진본부)' (단장 이돈명, 박순경)와 북측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북측준비위)' (위원장 김영대)는 남·북·해외 대표단 240여개 단체 6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48년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이후 첫 민족대단결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권오헌회장님을 대표로, 이정규 운영위원님을 참관인으로 참석시켰다.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님-2 / 출소장기수고성화선생님을 찾아서 오영순 갈현동후원회원-2 / 소위 '민혁당사건' 구속자 최진수님의누이 최진미씨를 찾아서 김호 편집위원-2 / 서미영·이동헌 회원을 찾아서 이승미 편집위원-2 / 산행기구준서 회원-2 / 시사모임 '민족통일대토론회보고'편 남보현 편집위원-2 /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기행기 이정규 운영위원-2 / 감옥에서 온 편지 소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구속자 구본승님-2 / 감옥에 보내는 편지 이창희 수습간사-2 / 감옥에 보내는 시 유병문 편집위원-2 / 인권침해사례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규탄-2 / 한총련 정치수배자 장터소식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농성단-2 / 비전향장기수 윤용기선생님 별세소식-2 / 광고-2 / 이런 일이 있었어요-2 / 회비납부-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7.4 남북공동성명의 현재적 과제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이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우리는 다시 7.4 남북공동선언 29돌을 맞고 있다.

분단 27년만이었고, 동족상잔의 총성이 멎은지 19년만에 있었던 이 역사적 성명은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7천만 겨레 모두에게 환희와 감격, 희망과 힘을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신문마다 대서특필하게 했던 그 감격의 순간들은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있을 때 더 큰 감동으로 재연되고 있었다. 두 정상의 역사적 상봉이 그러했고, 직접 서명함으로서 그 실천의지를 과시했었기 때문이었다. 겨레 모두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책동에서도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공동선언에 더 없는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천명한다고 했듯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자주와 통일로 가는 위대한 대장전이 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29년전 겨레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7.4 공동성명 내용을 되새겨 보며 7.4 남북공동성명의 현재적 과제가 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서울과 평양, 북과 남에서 동시 발표된 7.4 공동성명은 무엇보다 먼저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합의했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당연한 원칙이다. 자주독립통일정부를 세우려던 민족적 과제가 부당한 외세의 간섭·관여로 좌절되었고 부끄러운 민족분열과 국토분단을 겪었으며 자주통일 노력에 언제나 방해책동을 당했던 터에 외세를 다시 조국통일과정에서 간섭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터이었다. 어느 민족이고 자주성을 잃었을 때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모든 인류사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통일은 둘째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방법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통일하는 따위나 체제우위를 앞세운 다른 한쪽의 말살속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존중하는 토대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시키는 원칙이다. 어떤 사람들이 평화의 원칙을 분단상태를 평화관리로 왜곡하려는 책동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넘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단일 민족(혈연공동체)으로 살아오며 말과 글 등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양식으로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반세기를 겪는 동안 서로 다른 사상·이념·제도·체제와 가치관으로 발전해 왔다. 이미 반세기를 살아오며 몸에 배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체계를 모두 허물어 하나로 한다는 일은 가능하지도, 그럴 필요도 당장은 없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감들만으로 민족을 영영 갈라놓을 이유는 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민족 사회, 다문화적 체계에서도 한 국가로서 흠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에서랴! 그래서, 서로 다른 사상·이념·제도·체제의 차이를 서로 인정·존중하면서 한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해야 할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서로 중상·비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었다. 끊어진 민족적 연계와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하기로 했으며 적십자회담 등 인도주의 문제해결과 남과 북, 북과 남의 책임있는 실력자로 이루어진 남북(북남)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합의는 불행하게도 유신독재체제에 의해 파행되고 있었지

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가 요구하는 희망적 진로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저력이 또 다시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창출해 내게 했었다.

이처럼 7.4 남북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밝히는 자주통일 헌장으로, 그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행하고 실현해야할 현재적 과제로 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현재적 과제로 구체적 실현사항들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민족자주의 실질적 확보이다. 자주는 입으로 외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자기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어떠한 걸림돌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6·15공동선언에서는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외세의 개입관여를 철저히 배격함을 말한다. 외세를 배격하려 함은 수구적 폐쇄성때문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앞세운 패권주의 침략성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의 정의와 평등·우애의 보편관계가 아닌 바로 미·일 등 제국주의·군국주의 침략성 때문이다. 그래서 7.4 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옳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한·미·일 공조체계를 허물어야 한다. 그러한 용어조차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 땅을 반세기가 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군사지휘권을 거머쥐고 있는 것을 비롯, 정치·경제·군사·외교·문화 일반에까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뉴욕 인터워치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평결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코리아 전쟁당시 3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1945년 해방직후 지금까지 세계인권헌장과 조약, 각종 국제규약 및 협정, 미국과 남·북의 법을 모두 위반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소장에, "각종 증언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945년 해리 트루만 이후 조지 부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국무, 국방장관, 각종 정보기관의 책임자 및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벨기에의 미치 도우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26명의 배심원들이 '민간인 학살', '반인륜적 전상범죄 해위죄' 등 죄명으로 평결했다. 비록 이 민간 국제법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해도 "전세계의 정의·양심의 이름으로 미국의 범죄행위를 단죄했던 것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도 우리의 자주·통일 등 민족문제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지난 식민지지배의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 특히 군위안부 문제 등 범죄사실들에 발뺌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새역사교과서'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심지어 독도를 제 땅이라 억지를 부리는 등 '주변사태' 등 틈만 있다면 재침략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이들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자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미·일의 과거 범죄행위와 오늘 이어지고 있는 패권적 지배야욕과 제국주의·군국주의 부활획책에 이제까지 민중진영에서만 싸웠던 것을 보다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외세와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 놓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강력히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동포를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에 정면배치 되고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사상·이념·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으로 대단결하려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 국방당국에서 말하는 주적개념과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반국가단체는 바로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말살해야 할 대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산물이었다해도 이제는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시대이다. 더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다. 정부당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615공동선언에 대한 이율배반적 모순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북을 반국가 단체 개념에서 없애는 방법으로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하여 입막음하려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번 밝혀왔듯이 눈감고 아웅식일 뿐이다. 3~10조까지 처벌규정 모두가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짜여졌는데 '정부 참칭' 부분을 없앤다해서 반국가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특히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반민주·반인권 악법이기로 하다. 사상·양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반인권 악법일 뿐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6·15 공동선언에 배치되는 반민족(반통일) 악법으로 이 법 철폐투쟁은 구국 투쟁이기도 하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민간 단체들이 해야할, 또 하나 가슴에 새겨둘게 있다. 각계 각층 각 부문간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그 작은 차이를 넘어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려는 의지와 성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연대·연합하는데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1돌을 맞아 지난 달 15~16일 금강산에 있었던 남·북·해외 각계각층 대표들의 "민족통일 대토론회" 공동행사는 앞으로 남북사이 사상과 이념·제도 차이를 넘어 민족대단결하는 좋은 본보기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쪽에서 민족공동행사 추진과정에서 연대연합에 대한 입장차이나 연대연합과정에서 통일연대의 책임성 문제, 특히 남측 대표단 6명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불허조치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남과 북·해외 250여 정당·사회단체 700여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큰 흠점없이 마친 것은 민족대단결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였다 할 것이다. 1948년 4월 일부 세력의 분단책동을 막아내고 자주적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세우려 마련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민족대단결 전통을 잇는 역사적 대토론이기도 했다. 금강산 대토론회는 단지 남·북·해외 몇 사람의 발제토론이 모두가 아니었다.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남·북·해외 대표들이 연회를 통해서 옥류동·구룡폭포 등 등산을 통해서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잘못과 통념을 깨고 동질성이 더욱 많은 동족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경제·통일·노동자·농민·청년·여성·종교·문화·학자 등 각 부문별 간담회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번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이 이어졌다. 그곳에서는 범민련, 한총련도,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도 거의 비슷한 대화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 총동맹 등 북쪽 대표들과 나눌 수 있었다.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넘어 계급·계층,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는 혈연공동체로 서로 공통된 민족적 정서와 나라사랑·겨레사랑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민족공동행사야 말로 자주·평화적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토대이면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구체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많은 각계 각층 성원들이 더 자주 만나는 교류협력을 함으로서 어떠한 외세나 반민족악법으로도 장애받지 않고 자주와 통일세상을 열게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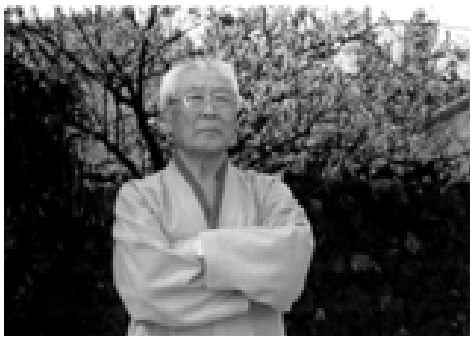
7월 산행안내

가뭄과 장마가 지난 뒤 짙푸른 여름 산행입니다.
우리는 이번 산행에서 8월의 통일대행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통일산행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1년 7월 29일 오전 10시
장 소 : 도봉산 입구 지도판앞
준비물 : 3000원, 도시락 등
오는편 : 도봉산역에서 내려서 걸어오세요! 버스 19번, 좌석버스 2번 종점입니다.

자기개조의 노력 없이는 옳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오영순 갈현동후원회 회원



도덕관과 윤리관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변절을 능사로 일삼고 양심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이 오히려 기름진 밥을 먹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 체제하에서 자신의 신념을 끝내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히 더 굳건히 흔들림 없이 오랜 투옥 생활을 꿋꿋하게 이겨내신 모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은 곧 선망의 대상이자 교훈을 일깨워 주시는 참 스승이시다.

따뜻한 밥 한 공기 정성스레 지어 올려 함께 생활할 날이 영원할거라 생각했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그리운 산하로 돌아가신 후, 이곳에 남아계신 장기수 선생님들을 찾아 뵙는 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는데 여념이 없었던 나에게 뜻하지 않은 영광이 찾아왔다.

긴 역정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제주도에 머물고 계신 고성화 선생님께서 쓰신 비망록(애국의 길)에 대한 원고를 직접 접하게 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책 서문에 밝히기를, 이 책은 어느 위대한 과학자가 인류를 위한 과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기록도 아니며, 또 읽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문학적 명저가 아님을 밝히셨지만, 질곡많은 이 땅의 역사속에 그 궤를 같이했던 한 인간의 당당한 삶을 기록한 책자가 주는 감동은 선생님의 겸손함을 돋보이게 할뿐이다.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이 있는 그대로 표현된 기록속에서 금새 선생님이 어떤 분이심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가식이나 꾸밈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가미되지 않고 미화되지 않은 솔직 담백한 내용을 타이핑하면 할수록 많은 부끄러움과 부러움으로 선생님을 어느새 내 가슴에 품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 내 나이 85세라.' 이 함축된 말 한마디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랴마는 내가 직접 만나뵌 선생님은 '이제 내 나이 85세라.' 고 왜 말씀하셨는지가늠케 하고도 남았다.

사랑하는 옛 애인을 가슴에 품듯 설레이고 두근대는 마음을 한아름 안고 직접 만나뵌 선생님의 실제 모습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덕망을 온 몸에 품어 인품다운 인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였음을 첫눈에 알아보고야 말았기에 조심스레 고성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

선생님은 1916년 8월 20일 제주도 우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다.

순수하기 그지없고 맑기만 했을 어린 동심시절. 같은 인간이 다른 생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무신과 짚신의 차이에서부터 어렴풋하게 짐작했다던 선생님은 점차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계급사회에 대한 의식을 싹틔우셨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일하며 돈있는 부자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감수성 많은 소년시절에 익히 깨달으셨고, 초등학교 3학년때 일어난 조선독립을 위한 3.1운동을 보시고 총탄에 무수히 쓰러져 죽어가는 많은 민중들을 속수무책 방관하는 지도부와 독립선언문을 읽었다던 33인중 한사람만 빼고 모두가 일제에게 승복하여 변절한 상황들을 보시며 선생님은 남다른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신 듯하다.

1929년 봄, 사립 보통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팔아서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머니 말씀을 단호히 거절하고 일본으로 건너 오라는 내종형의 권유를 받고 고학을 할 생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셨는데, 썩어빠진 일본제국주의 교육을 받아 무엇하려 하느냐는 자형을 따라 이른바 좌익 정당

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 농민당, 노동조합들 측에서 날마다 여는 연설모임에 참관하면서부터 애국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고 계셨음이라.

중학교 3학년! 꿈많고 감수성 예민할 소년시절 신분으로 반제동맹 조직에 가입하게 되신 선생님.

선생님은 그당시만 해도 계급적으로 의식화되어 있지 못했고 실천면에서도 관망하는 입장이셨는데, 이론과 실천은 엄연히 다른 문제임을 깨닫고 본격적인 실천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아닌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가이며 반제동맹의 조직자인 고바야시 다기지의 명저 "당 생활자"를 읽고 나서였다고 한다. 진리는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나서부터 선생님은 실천하는 투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48년 5.10단선. 나라를 양단하여 이남을 식민 지배하려는 미군정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대다수 애국인사들이 5.10단선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시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민중들을 투표장에 내몰아 폭력 선거에 앞장서게 한 미군정과 남쪽 정권에 죄없이 학살된 민중들을 보며, 정의감에 불타 부산시 당을 책임지고 책무를 수행하시던 선생님께서는 지하선거 지령을 받고 고군분투하시다 전쟁이 터진 당일날 아침 붙잡혀 2년 동안의 호된 감옥 생활을 겪게 되신다.

전쟁중의 감옥생활. 그것은 이중의 철창을 의미한다. 적과 아의 선명한 구분속에 나/우리와 다른 사상 · 습관 · 제도는 짓이겨져야 하는 폭력의 절정판인 전쟁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신적 감옥이었다면 그를 둘러싼 물리적인 철창은 감옥 안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2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선생님이 목숨을 부지했던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1968년 당의 소환을 받고 신분을 위장해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며 "통일 투쟁"이란 책무를 맡게 되는데, 당시는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종사촌 동생 처의 밀고로 또다시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가 1973년 3월 31일 아침이였다 한다. 생각지도 않은 밀고로 수감생활을 다시 해야만 했던 선생님. 밀고 이유는 당신의 남편을 빨갱이로 만들어 집안을 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권력의 단죄 앞에 전통적인 가족 관계조차 일그러졌던 시대의 자화상이다. 내면화된 반공의식이 지금도 걸핏하면 국민정서로 대변되는 전통은 이때에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감지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수감된지 일주일이 지나 끔찍하게 기사화된 신문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최후의 버팀목인 가족으로부터 밀고를 당한 상황에서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끔찍한 고문과 협박 또한 견뎌내기 힘드셨을텐데, 그당시 간첩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에 뿔이 달린 짐승으로 여겼던 시국에 감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정간첩이란 말 한마디에, 선생님을 소외시킨 상황을 읽어내릴 땐 가슴 한켠이 시려와 눈물을 끝내 훔쳐내고야 말았다.

물리적인 고통도 힘들겠지만, 아무 죄없는 사람이 누명을 쓴채 인간적인 고독감을 이겨내야 하는 싸움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생님은 신념에 따른 행동과 판단의 정당성을 외면 당한채 긴 감옥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던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취급도 받지 못하는 감옥 생활을 항상 꿋꿋하게 싸워내셨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시어 당신의 진정한 소리를 잃지 않은 선생님의 수감생활을 엿보면서 선생님 모습은 더한층 빛나 보였다.

또한 그 어려운 수감 생활속에서도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잃지 않고 계셨던 인간적인 사랑과 끈끈한 동지애를 들여다 봤을땐 사람의 영혼이 빵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1993년 비전향 장기수들의 네 번째 출소가 예정되어 다섯명이 출소하기로 결정되던 날, 고성화 선생님도 다섯명 중에 끼게 되어 출소하시게 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1차, 2차에 나가신 분들의 수형 기간이 모두 30년 이상인 것과 연령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선생님은 들러리였기에 그리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 하신다. 20년밖에 안된 수감생활에 자괴감을 느끼고, 옥중에 남아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감옥문을 나오셨다는 선생님은 여전히 철폐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더욱 기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간이 존재하는한 일상 속에서 희노애락을느낄 자유는 사람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독수리가 병아리를 순식간에 낚아채가듯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낚아 채 가는 지배권력의 전가의 보도이다. 일상의 희노애락이 사람다운 삶을 위한 초시대적인 조건이라면 국가보안법은 초시대적인 악법이다. 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바깥의 공기는 선생님에게 여전히 탁한 것이 아니었을까?

역사의 뒤안길에서 평탄치 않은 삶의 역정을 겪으신 만큼 인생의 고뇌를 겪어오신 주름이 있을 법도 한데 인자하심과 덕망을 한몸에 품고 계신 선생님의 인상을 어디에 비유하여 말하랴. 선생님의 자태속에서 정열과 신념과 사랑과 순수함을 읽어내릴 수 있었으니 그 어찌 감격하지 않으랴!

선생님께서는 굴하지 않고 힘있게 말씀하신다.

"자기 개조 노력없이는 결코 옳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때문에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생기고, 그 결과로 상대를 업신여기는 우월감과 지배욕, 관료주의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악습은 자본주의 제도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병폐이자 인간해방의 길 또한 요원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 모든 악습을 없애는 제도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지적 우애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제도밖에 없다. 착취와 지배가 없는 나라, 우리 민족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는 나라,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리와 정의에 불타는 모든 양심은 일어서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아직도 그 누구 못지 않은 열정과 젊음을 품고 계셨다. 바로 양심을 쫓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선생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진리와 정의에 불타는 양심인들 앞에 선생님의 인생은 새로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더 많은 부끄러움에 난 몸을 사리고 말았다.

갈현동 후원회 회원들과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을 찾아 뵙던 날, 저녁을 같이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냉장고에 며칠 묵은 찬밥 덩어리가 있었다. 그 찬밥덩어리를 데워서 같이 먹게 하는 게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아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 세분 것만 따끈 따끈한 밥을 짓고 싶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극구 마다하셔서 데운 찬밥을 선생님 앞에 올렸을때 죄스런 마음을 쓸어 내기가 힘들어 속이 상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을 너무 맛있게 드시어 다소 어두워진 내 마음을 풀어주기조차 하는 미덕을 보여 주셔서 더욱 더 할말을 잃고 말았다.

이제는 당신이 살아오신 삶의 역정을 뒤로 하고 대우받기를 원하신다 해도 상관없을 법도 할텐데 선생님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음에 잠시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따끈한 밥 한공기가 선생님이 꺼려하시는 우월감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성어린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십사 하고 감히 말씀 올려본다.

몇 날 몇 일밤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배가 불러 살 것 같았지만 내일의 세상이 있었기에 늦은 시각 아쉬움을 접은 채 우린 일어서야만 했다.

선생님의 늦은 배웅을 받으며 만남의 집을 나서는 순간 그곳에 함께 했던 갈현동 후원회 회원들은 서로가 말은 안했지만 홍조된 얼굴빛과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훈훈한 열기를 서로에게 느끼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내고 있었다.

자기 개조의 노력없이는 결코 옳은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고성화 선생님을 만나 뵐려면 우선 선생님의 비망록 책자를 읽어보심이 좋을 듯 싶다.

선생님 또한 유년시절 실천의 계기를 한 권의 책으로 자각하셨듯 선생님을 책속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인간적인 자세들을 확고하게 터득하고 남지 않을까 싶다. 선생님의 책의 깊이도를 헤아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사회에 밝은 광명과 희망이 보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너 현장에 들어가라."

김 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서울구치소 앞에서 항의방문 중인 최진미 님.

필자는 소위 민혁당사건으로 구속된 최진수님의 누이 최진미씨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그리고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일년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만났다.

최진미씨가 운동에 접어든 길을 들어보니 오빠의 책임감이 클 뿐 아니라 이후 오빠가 운동선배로서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진미씨는 80년대 오빠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 때 오빠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너 현장에 들어가라."

둘째 동생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라오면서부터 장남인 오빠에 대한 신뢰가 두텁던 동생들은 그런 오빠를 따라 현장에 투신했다고 한다. 이거 소위 공안당국이 이야기하는 '빨갱이 간첩' 집안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간첩이란 말이 나왔으니 간첩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자.

"간첩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spy)요, 한자로 말하면 사이間에 엿들을 諜이니 모두 '사이에서 엿듣는 사람' 들이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항상 사이를 지나가게 마련이며, 항상 간첩질을 하게 마련이다. 항상 사이에서 엿듣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사이에서 엿듣는 행위자체가 그 자체로 전혀 나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쁨' 이라는 윤리적 가치(ethical value)가 발생하는 상황은 그 사이를 형성하는 양자가 대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한정되는 것이며, 그 한정된 상황속에서도 間者(사잇사람=간첩의 옛 이름)의 행위가 일자를 유리하게 만들고 타자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결과론적 평가에 의하여만 그 윤리성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서승의 간첩행위의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 이유는, 그의 사이(間)를 형성시키고 있는 양자가 당위적으로 대적적일 수 없는 관계며, 또 그것은 두 개의 국가라는 실체성을 용인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양자는 利와 害를 흑백의 논리로서 판정지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며, 설사 그의 행위가 북을 유리하게 한다할지라도, 북의 유리하게 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보람을 획득할 수 있는 큰마음을 지녀야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他의 유리함을 감내하면서도 自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정치의 바름(=政=正)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 따위 서로 헐고 뜯는 것이 정치라면 누군들 못할 소냐?"

이러한 '간첩' 에 대한 생각은 요즈음 사회적으로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통해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용옥조차 자신의 책에서 당당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이라는 흑백논리에 의해 이러한 내용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하여튼, 최진수님의 집안은 지금도 학교에서 데모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내가 아직까지 철이 없다면서 내 말 알기를 강아지 짖어대는 것처럼 우습게 아는 내 여동생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가정에 비교한다면 예사 집안

의 환경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오빠가 운동에 접어 든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던 중 스치듯 지나가던 말이 내 뇌리에 들어왔다.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 했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서 반장도 못 되는 등 차별의 설움을 받고 자랐는데, 그 때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야적인 기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하면서 동생은 말끝을 흐렸다. 자신이 얘기하고도 오빠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기에 긴가민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이다. 왜 심리학자인 융이 그런 말을 했지 않았는가? 지금은 의식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저 심연의 잠재적인 무의식의 심층에서 끊임없이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여 80년대의 치열한 삶을 살아온 최진수씨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종일토록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어야 했던 막노동판에서, 용변을 보고도 아래층에서 눈치챌까봐 물을 내릴 수 없었던 골방에 갇혀 저는 이런("나를 지켜주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하나?" 등의) 번뇌망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에게는 다른 이들을 불행의 늪에 몰아넣는 대가로 얻게 되는 일신의 안일은 결코 안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터무니없는 선택을 했다면 저는 결코 그 번민과 고뇌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치욕스런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이는 최진수님의 최후진술 가운데 한 내용이다.

그렇다. 양심이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다. 하기에 그것은 그 어떤 법의 잣대로도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날개 짓은 'L.A 나비의 진동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몰아온다는 가이아 이론' 처럼 그 언제인가 조국통일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다. 물론 그 시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 온 우리들의 신념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회의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다.

한때 양심수였던 필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문득 가족을 통해 양심수를 바라보고 싶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뜨거운 동의를 받을 때의 행복감이란 매우 큰 것이다. 최진수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행복한 사람' 으로 만든(?) 여동생 최진미씨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다.

알립니다

6.15 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한마당이 열립니다.

오는 7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남산 안기부 옛터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족통일염원 원혼굿' 을 시작으로 명동성당과 거리를 행진하여 명동입구에서 '6.15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문화제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대 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그의 대표적 집행기관 안기부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그들의 염원인 조국통일으로 승화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의 통일운동촉진기간에 울려펴지게 하기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낙성대 회원모임방에 팩스기가 놓여졌습니다.

팩스번호는 전화번호와 동일한 888-4470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아쉬움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이승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늘 미안해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작년 말과 올 봄, 송년회와 정기총회를 앞두고 천여 명에 달하는 후원회원 분들에게 안부인사와 홍보 차 전화 돌리는 일을 회원들과 함께 한 적이 있다. 위의 말은 당시 전화를 받는 회원분들 대부분에게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의 주 내용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보기 드물게 큰 덩치(?)를 가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직의 대다수 회원 분들이 가진 후원회를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행사나 활동 등에 참여는 못해도 그 마음들은 따스한 애정과 관심, 기대 그런 것들일 것이다. 또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내가 오늘 만난 회원도 마음은 있지만 이래저래 여건이 맞지 않아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분, 바로 서미영 회원님이다. 조금 지나면 첫돌을 맞이하는 아들 이유찬 군과 함께 평촌의 한 아담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서미영 님과 남편 이동헌 님은 우리 후원회의 부부회원이다.

"저 둘째 가졌어요. 그간 유찬이 낳고 그 애만 보며 지내왔지요. 낙성대 만남의 집에 후원회 모임 공간이 만들어졌다 길래 집에서 그리 멀지 않고 하니 이제는 아기 업고서라도 행사나 모임에 종종 가야지 했었는데, 그만 또 어려워졌지 뭐예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서미영 님이 약간은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띄우며 넌지시 꺼낸 말이다. 그래도 힘은 들지만 두 아이를 한꺼번에 키워내는 것이 후에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이라는 주위 분들의 조언에 이제 마음을 잡아가고 있다 하니, 경험 부재인 나 역시 "그래요. 맞아요." 하며 열심히 응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미영 님은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고, 부산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이동헌 님은 대학 입학 무렵 서울로 상경했는데, 두 회원님 모두 서른 두 살의 동갑내기 부부이고 소위 말하는 대학 '캠퍼스 커플' 이다.

"맏이로 태어나 자라서 잘 몰랐는데 막내가 좋긴 좋더라구요? 막내며느리라고 웬만한 잘못은 그냥 덮어주시곤 하지요. 막내니까 하시면서요."

두 회원님이 서로를 처음 알게된 건 한양대 탈패 동아리인 '민족문화연구회' 에서 였다. 90년도에 이동헌 님은 생물학과에, 서미영 님은 응용미술학과에 각각 입학하여 1학년 때부터 그 동아리에 가입, 활동했다. 고등학교 시절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보고 그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단다. 서미영 님은 2학년까지 그곳에 있다가 3~4학년 때는 총학생회 집행부로 들어가 일을 했고, 이동헌 님은 계속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3학년에는 동아리 족장(회장)을, 4학년에는 '서울지역 탈패 협의회' 회장을 맡아 일을 했다.

대학 생활에서 느꼈던 점들을 물어 보았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건 정말로 나의 복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는 또 다른, 선배나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 선배, 동기들에게 지금도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사람을 잘 챙겨주는, 책임감이 높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 자체부터도 좋았어요. 생활, 학습, 투쟁 등 모든 면에서 치열했고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답변 내용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임에 난 이제 서미영 님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후로도 그녀는 사람 얘기를 많이 했다.

4학년이 되면서 활동을 위해 1년간 휴학했던 서미영 님은 95년도 봄에 졸업을 한다. 졸업 후 뱅뱅어패럴, 웹디자인 회사 등에서 작년 2월경까지 직장생활을 지속했다.

그리고 4학년 때 군 입대를 한 이동헌 님은 제대 후 98년 여름이 되어 졸업을 했다.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 같은 부부이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건 3학년 때부터예요. 당시 학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했었어요…저는 자칭 '보기 드문 열녀'라고 말한답니다. 동헌씨가 군에 있던 3년의 기간을 고맙게도(?) 잘 기다려 줬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추진력과 자신감이 있고 성실하고 활발하며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처음엔 자신감 결여 등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그가 채워주어 좋았고 이런 점들이 점차 신뢰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 같다고 한다.

98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이동헌 님은 몇 군데 직장을 옮기다가 작년에 입사한 한 의료기기 무역회사에 지금껏 다니고 있다.

"아이가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그 직장에 정착한 것 같아요. 이젠 안정돼 보이지요. 그래도 때때로 안쓰럽단 생각을 하게 되요. 하고싶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록 함께 만나진 못했지만 이 부부가 가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조금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로 갈등 같은 건 없었느냐'는 짓궂은 질문까지 하고야 말았다.

"워낙 어렵게 시작한 연애라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군대 가있을 때 한번 동헌씨에게 '기다리는 게 지루해'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한데, 그게 전부지요."

서미영 님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가입하고 활동한 건 대학졸업 무렵부터였다.

"사회에의 진출을 앞두고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만들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식힘 그릇'이라고 지었었어요. 그 모임의 88학번 유병수 선배님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지요. 동헌씨는 군 제대 후에 가입했구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차를 지켜보고 마셔 본 사람이면 식힘 그릇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름에는 과함을 적당함으로 바꾸어 잘 쓰여지게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준비'의 의미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음이리라.

"당시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 후원회에서 만나 뵌 많은 분들에게 저는 또 새로운 감동을 느꼈어요. 특히 그분들의 청년과 같은 눈빛을 대했을 때에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 정말 실제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또한 자신이 감히 뭔가 후원을 하겠다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갈급했을 때 선생님들을 뵈면서 그 품행과 면모들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늘 앞섰다고도 했다.

"후원회 하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후원회 활동을 진정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처럼 직장이나 가정의 일상적 삶에 그냥 찌들어 있는 젊은이들은 특히 더 선생님들의 활기 있고 힘있는 모습 뵈면서 힘을 얻어오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 보다도 만나고 싶은 선생님들을 뵙기 위해 더 후원회에 가

게 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서미영 님은 이렇게 회상했다.

"치열했고 그만큼 소중했던 시간들. 졸업 후엔 많이 퇴색되면서 그 때의 생활들을 그저 욹어먹고 있구나 싶기도 했었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후원회 산행이나 행사에 참석하곤 했지만 결혼 이후엔 그것마저도 소원해지고…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많이 해왔습니다. 후원회 홈페이지 디자인 일에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 좋았는데…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서요. 늘 마음만 가지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회한 어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서미영 님에게 이번엔 후원회에 대한 바램을 조심스레 물어 보았다.

"회원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열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좀 더 많이 알려냈으면 한다는 말이지요. 이를 위해선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등을 자세하게 잘 하면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들 개별 후원이나 간병 일도, 소식지 발송작업 같은 일들도 사실은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회원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소식이나 활동도 알려주고, 지역 동호회 같은 것도 꾸려진다면 지방에서도 참여할 수 있을테구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주는 서미영 님의 모습이 참 고맙고 또 아름다워 보였다. 이는 곧 후원회에 대한 애정, 나아가 사회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소망의 표출이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다.

거의 매일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퇴근한다는 이동헌 님은 안타깝게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그런 내게 "동헌씨도 후원회에 대해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하고 덧붙여 준다. 이젠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로 더 바쁘게 뛰고 있을 이동헌 님에게 건투 인사라도 보내드려야 할 듯 싶다.

마지막으로,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친정아버지께서 만성 간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오고 계셔 맘이 아파요. 건강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그냥, 이런 집에서 세 식구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서미영 님은 자신에 대해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긴 하지만 솔직하고 성실한 편이기도 하다면서 "늘 솔직하고 무슨 일에든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부러 자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강조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낯선 어른에게 아양 섞인 미소를 얼굴 가득 띄워 보였던, 또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들어버렸던 유찬이의 그 맑고 환한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힌다. 그리고 그 모습 위에 유찬이 엄마의 얼굴이 겹쳐져 아른거리는 건 아마도 그와 유사한 맑음을 그녀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산책 좀 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배웅 나온 서미영 님은 다시 또 이야기했다.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돼 후원회 활동을 못하고 있는 수많은 회원들, 그들은 분명 그마만큼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쉬움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이 말속에 후원회가 해나가야 할 과제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나는 비교적 깨끗하고 널찍하게 닦여져 있는 평촌의 거리를 그저 무겁지만은 않은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오는 7월 28일날 유찬이 돌잔치를 한단다. 뷔페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후원회원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식사 한끼 할 수 있다면 자기는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한다. 누구든 진심을 다한 서미영 님의 이 바램을 직접 들은 사람이면 정말 가서 함께 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입덧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불편한 몸이었음에도 성심 성의껏 대화에 응해준 서미영 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아울러 이동헌 님과 유찬이, 새로 태어날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드린다.

"이게 뭐죠?"

구준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이게 뭐죠?"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차려진 음식만 먹었다.

원래 내 계획은 이랬다.

1. 사람들이 도시락으로 산 김밥만 꾸역꾸역 먹는다.

2. 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거 제가 김밥집 아주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싸온 떡복이 국물입니다"라고 말한다.

3.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맛있겠네!!"

이게 원래 내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기구이 통닭, 맛있는 된장에 상추,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밑반찬, 게다가 처음보는 고기완자- 이 고기 완자는 맛도 맛이었지만 메추리알로 모양까지 완벽하게 냈다."

이것들이 산행 중 백미인 점심시간에 각자 꺼내 놓은 음식들이었다. 내가 특별히 주문해 싸온 떡복이 국물은 바로 쓰레기 담았던 봉투로 들어갔다.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그때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난 모른척 했다. 비닐봉지에 국물이 흘러내린 초라한 떡복이 국물은 원대한 내 계획의 도구였다. 비록 내 원대한 계획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날 점심은 기막히게 맛있었다.

역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것은 음식이든 뭐든 나눌 때 생긴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아침에 전철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어색함은 이렇게 사그라들고, 내려올 때는 제법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너무 오랜만에 산에 오른 탓인지 산행이 쉽지만은 않았다. 산에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힘들다고 투정 부리던 사람들의 말은 그냥 웃어 넘겼는데, 정상 부근의 바위산을 오를 때 "야! 우리 이렇게 많이 걸으면 안돼, 자꾸 걸을수록 개미나 벌레를 밟아 살생을 하잖아"라는 한 누나의 말이 너무나 진지하게 들렸다. 잠시나마 그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리인 듯 느껴졌다. 비록 잠시였지만.

산은 참 무미건조했다.

같이 산에 올랐던 현태 형의 말처럼 비가 오자마자 물이 흘러내려 '수락산'이라는 말처럼 물이 없었다. 산의 계곡에도 물이 흘렀던 자국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말라있었다. 산이 깊고 크지 못해 이렇게 가뭄이라도 들면 물이 말라 버린 것이다. 역시 속이 깊고 품이 넓어야 물도 고이고 이 맑고 시원한 물을 찾아 사람들도 모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득 '가뭄에 시원한 물을 고이고 있듯, 어려운 시기에 여유와 넓은 품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속좁음과 부족함을 보고 돌아섰을까?

산은 무미건조했지만 산행은 탱탱하게 물이 오른 앵두처럼 상큼하고 시원했다. 역시 가장 탱탱한 앵두(?)는 어른신들 이었다. 점심 후 수박을 먹으며 들었던 어르신의 노래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는 요즘 유행하는 허무시리즈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했던 노랠까?

나는 한참을 오르다가 어르신께서 놓고 온 안경을 가지러 다시 내려갔다 왔다. 이게 정태형을 신이 나게 했다. 정태형은 처음 양심수 후원회 활동을 시작한 10년전 나처럼 심부름을 했다고 했다. 옛날 생각이 난다나? 결국 난 온몸을 바쳐 한 노(?)선배를 즐겁게 한 거다. 사실 난 거의 죽을 맛이었다. 내가 안경을 가지고 오자마자 사람들이 "안경 왔네요, 올라가죠?"라며 올라갈 땐 특히. 죽을 맛이었지만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젊어서 좋으네", "대단하네"라고 말씀하셔서 내색은 안했지만 입안의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산에서의 탱탱하게 물이 오른 앵두같은 산행을 마쳤다.

뒷풀이는 권오헌 선생님께서 토론회차 금강산에 다녀오시며 가지고온 들쭉술로 했다. 어르신들께서 10년전 양심수 후원회 활동을 시작하시던 때와 달라진 것이 '많아진 흰 머리' 만은 아닌 듯 하다. 북에 다녀온 한 활동가의 북녘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북의 술로 뒷풀이를 한 것도 분명 달라진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회 시사강좌
'민족통일 대토론회 보고' 가 있었습니다.

남보현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시사모임 회원

6월 24일(일) 낮 12시부터 '양심수후원회 제2회 시사강좌' 가 있었습니다. 시사모임에서 준비해서 시사강좌라고 이름 붙여진 듯(?)하지만 시사적인 것보다는 중요행사나 우리들이 그 때 그 때 알아야 할 것들에 촛점을 맞춰보자 했습니다. 5월에는 '양심수후원회 12년사' 라는 제목으로 첫강좌를 열어 권오헌 회장님의 강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아름다운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12시부터 하나 둘씩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창희 간사님이 정성껏 준비하고 시사모임 회원들이 거든 점심식사를 먼저 한 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금강산에서 가져오신 포도주맛나는 들쭉술과 수정수를 한 잔씩 받아 마시며 '후원회 강좌에 나오니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자주 나오는 회원들이 많이 빠져서 "이거 대여섯명만 모여 하는거 아냐?" 하고 주최측에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처음 나온 분과 오랜만에 나온 회원들이 있어 열네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먼저 각자 소개를 한 뒤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고 오신 회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 가 치뤄졌습니다. 남북 제 사회단체 250여단체가 참가했고 남쪽 441명, 북쪽 223명이 참가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측에서 주요 대표로는 김영대 단장, 안경호 범민련 의장, 직업청년회 부위원장, 조선 여성동맹 위원장 등이었고 남에서 5명, 북에서 5명이 토론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에서 단결을 해칠 수 있는 과격한 주장이나 구호가 나오는 것을 삼갔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토론회보다 금강산 구룡폭포까지 남과 북이 둘씩 둘씩 짝을 이뤄 가는 길이 더 뜻깊었다고 말씀하시며 "결론은 6.15 공동선언에 양심수후원회가 앞장 서 나가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규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촬영하신 것을 2시간으로 편집하신 비디오를 시청하였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북측 인사는 김영대 북측단장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비서였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도 뱃심있다고 묘사하는 김영대 단장의 모습과 마지막 발언을 힘있게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비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북 측 인사 중에 어떤 남자 교수님이 농부같은 순박한 모습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썬그라스가 인기라고 하는데 썬그라스를 낀 멋쟁이 여 문학교수님이 이야기를 나긋나긋하게 오래 하는 모습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교수님 같아 친근감이 듭니다.

북에 송환되신 장기수 선생님들이 참석 못하셔서 회

장님이 여기저기 선생님들의 안부를 묻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다음 번에는 선생님들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 꼭 뵙기를 바래 봅니다. 그래도 이번에 비전향 장기수 권낙기 선생님(통일광장 공동대표)께서 방북하셔서 통일을 한 걸음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토론회 후에 문예공연에서 북 대학생들의 노래공연과 북한 영화 주제곡으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남성분의 '심장에 남는 사람' 이란 멋진 노래를 들었고, 이어서 모란봉 교예단 공연이 있었고, 밤에는 남북 부문별 간담회가 10여 부문으로 나눠 열렸으며, 각 부문별로 남북측 각 10명 내외로 참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부문별로 북측의 공식 접촉 창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나 구체적 토론의 진전은 부족한 편이었다 합니다. 지난 5월 1일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성사한 남북노동자들이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를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실현하자." 고 밝힌 대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뜨거운 결의가 무르익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덜 되고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차차 나아지리라고 보며 우리들 모두가 노력할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일차에 산행한 금강산 코스가 화면에 펼쳐지자 마치 내가 산에 오르는 기분에 사로잡히며 열심히 보았습니다. 금강산 코스는 세존봉과 옥녀봉 사이 구룡연 계곡으로 구룡폭포 계곡으로 알려져 있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평사면의 계곡입니다. 옥류동은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 내린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무대 바위는 선녀들이 하강해 춤추며 노래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이어서 구룡폭포(189미터)가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폭포를 다들 입을 벌리며 보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해맑은 소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런데 왠 도사같은 차림의 남자가 바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북녁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하였습니다.

송별회 때 '우리 다시 만나요' 라는 노래와 함께 "다시 만나요."를 외치는데 보는 우리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회장님과 이정규님은 어땠을까요? 이정규님이 손을 흔들며 우는 모습이 인터넷에 떴다고 하는군요. "웃는 모습을 찍을 것이지 하필이면 우는 모습을 찍어?" 하시면서도 집에 와서도 계속 정들었던 북쪽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우리들도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우리 겨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끝으로 송창학 선배님이 사회를 보며 소감들을 몇사람이 이야기 했는데 의숙 언니 말, "회장님이 두 번 째 북에 가셔서 북쪽 여자들을 보며 눈이 더 높아지셨을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을 조급하게 생각안해도 되겠어요."

오랜 가뭄 끝에 촉촉한 단비가 낙성대 정원을 흠뻑 적셔 주었는데, 다들 분단 이후 최초이자 최대의 남북민간 대표들의 만남의 장을 보고 촉촉한 기분이 되어 돌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정규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나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심장 속에 남는 그런 사람을.

잠깐 아주 잠깐 만났는데 그들은 내 심장에 조국통일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북녘에 가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설봉호' 를 타고 속초를 출발하여 장전항에 도착을 했는데도 나는 너무나 덤덤했습니다. 북녘에 와 있는데도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으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을 했지요. 내가 아니고 정말 와야 할 사람이 왔어야 하는 것인데 하며 첫째날 밤에는 해금강 호텔에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내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휴양소에서 동포들과 헤어지면서 나는 울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는 참 민족을, 진정한 통일을, 민족적 자주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나의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통일 운동하라고,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대단결에 가 있으라고. 빨리.

나는 올해 45살입니다.

그간 나는 반민족, 반통일, 반미를 통해 민족, 통일, 자주를 배워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북녘 동포들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난 북녘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통일을, 민족을, 그리고 자주를 배웠고, 그것의 실현을 민족 최대의 과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침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민족대단결과 자주 통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뿜어내는 역량과 방법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경험하는데 이틀간의 일정은 너무나 짧았지만 무척 즐거웠습니다.

덤덤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대토론회 장으로 가는 길. 현대측이 배정한 안내원의 주변 설명을 들으며 금강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 커다란 마당 안에 꽉 차게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조국통일', '민족자주' 라 쓰여진 빨간 천이 금강산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자주통일' 이라 쓰인 깃발을 들고 양쪽에 쭉 늘어서서 버스에서 내려 토론장으로 들어서는 우리 남쪽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한반도 단일기가 게양되는 것도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어 양측 대표들의 인사가 있고 각 토론자들의 토론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흘려버릴 것이 없었지만 어떻게 토론문만 듣고 있겠습니까? 각자 앉은자리에서 재미있게 대화를 하는 남북참가자들. 편안한 얼굴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서서히 하나가 되가는 사람들.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순덕 선생님을 비롯하여

아직 남쪽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의 송환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여맹위원.

사회과학자 협회 부위원장은 '이종환 선생님은 가장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어 지금 애국열사 묘역에 계시다' 는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송환하신 선생님들의 그간 밀린 학습을 위하

여 이따금 공부도 가르치신 답니다. 결혼을 하신 선생님들은 너무나 좋으시어 밖에도 잘 나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함빡 웃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모내기 갑시다!"하면 모두 함께 모여 모내기 지원도 가시어 막걸리도 한 잔 하시고 노래도 하시며 농부들과 즐거운 한 때를 갖기도 하시며 이따금 공연을 준비하여 학교, 공장 등지로 순회공연도 하신 답니다.

민화협 소속으로 오신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인 남측 참가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여교수와 흥겨운 대화를 합니다. 여교수가 '통일을 연구한다고 하기에 들어보았더니 순 엉터리구만요' 라고 해도 즐겁습니다. 연구원도 웃고 여교수도 웃고 나도 웃고. '그 동안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대했는데 이제 감성으로 만나야 한다' 고 통일연구원 연구자가 대응을 합니다.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이 조국에 오시어 젊은 청년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며 복되게 생활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전해 줍니다. 많은 젊은 청년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신념을 '따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교수에게 "당신도 선생님들 공부를 가르치느냐?"고 물으니 "나 같은 풋내기가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어떻게 선생님들을 가르칩니까?"하고 얼굴을 붉힙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즐겁게, 소중한 마음으로 각자의 대화를 합니다. 아마도 토론자들의 발제는 이후에 문건으로 보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땡볕아래 앉아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관심사를 묻고 답하기를 3시간 반정도. 사이 만찬을 알립니다.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한 10분이나 지났나? 생전 처음 만나는 우리는 어느새 오누이가 되었습니다.

애틋하게 챙겨 주시던 북측 오라버니들.

금강산 나물이라며 나물 이름도 하나 하나 일러주며 나물 접시를 들고 이것저것 먹어 보랍니다. 조개류가 담긴 접시를 들어 또 골고루 하나씩 챙겨 줍니다. 닭고기며 떡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챙겨 주십니다. 촬영을 한다고 잘 먹지를 못하니까 "촬영은 고만하고 이제 좀 드시라"고 하십니다.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후식으로 나온 얼음보숭이를 들고 계십니다. 냉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얼른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또 먹는데… 아이스크림 맛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독한 술은 못 마신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대단결 하자고 만났는데 한 번 마셔 봅시다."하고 제일 연장자인 범민련 큰 오라버니가 술을 권합니다. "술 취할 텐데요"하니 호텔까지 업어서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셨지요. 취하지도 않고 즐겁기가 한이 없으니.

만찬의 흥분을 가지고 '모란봉 교예단' 의 공연을 보러 금강산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작년 '평양 교예단' 의 서울 공연 때 잠실 체조 경기장 끄트머리에 앉아서 내내 설레임으로 공연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만찬에서부터 줄곧 함께 했던 범민련 오라버니와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예 단원들의 표정은 물론 그들의 손 끝, 발 끝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봉사한다는 신념을 고난도의 교예로 펼치는 배우들은 자긍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들이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들의 표현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공연을 펼치는 교예단원들의 생각까지도 내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 하였습니다. 공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주체교예' 라고 해도 될까요? 우리 민족이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널뛰기라든가, 장대예술의 말미를 장식하며 펼쳐 보인, '하나' 를 외치는 깃발. 공연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기예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속에 꽉 들어차 있는 조국을 보았습니다. 오늘 남북이 함께 모여 치루는 이 역사적인 행사의 의의를 참으로 기뻐하며 공연하는 그들의 정성이 그대로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만나지 못하면 산에 오르지 말고 돌이 되어 만날 때까지 주차장에 서 있습시다"라는 말로 내일 아침 만남을 약속한 범민련 오라버니와 북측 사람들은 그들의 숙소로 떠나고, 남측의 일부는 간담회 장소로 가고

일부는 온천으로 목욕을 하러가고 나는 온정각 휴게소를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에게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휴게소 안에 설치된 TV에서는 가수 전혜영의 테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가요 '호텔 캘리포니아' 를 부르는 그녀의 모습도 새로웠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천하의 명산 금강산.

금강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하니 '만나지 못하면 돌이 되자' 하시던 범민련 오라버니가 얼른 알아보시고 반가이 맞아 주십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내게와 인사를 하십니다. "아버님은 잘 모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시라" 고들 하십니다. 아마도 '민족 21' 에 썼던 추도사가 간밤에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만찬을 도왔던 접대원 동무들이 산길에 드시라고 웨하스와 생수를 나누어줍니다. 산세도, 산길도, 골짜기를 흐르는 내도 크고 작은 폭포들도 너무나 익숙한 우리 산입니다. 산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산사람도 모두 이제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남북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모습을 촬영해 두고 싶어 액정으로 살피는데 누가 북이고 누가 남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목에 관광증을 건 사람은 남, 가슴에 커다란 뺏지를 달은 사람은 북,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권오헌 회장님과 북쪽 민화협의 김 선생님 그리고 범민련 오라버니와 나. 이렇게 일행이 되었습니다. 촬영을 한다고 자꾸 더뎌지는 나를 기다리느라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늦어지니 김 선생님이 "정규 선생 이렇게 늦어지다가는 중간에서 돌아 내려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며 재촉을 하십니다. "그럼 빨리 가야지요." 하며 앞서가니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갑시다." 하며 다시 나의 바쁜 마음을 챙겨 주십니다. 촬영하랴 구경하랴 이야기하랴 바쁜 내 입에 간식을 넣어주기도 하시던 범민련 오라버니 말씀이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고 하십니다. 구룡폭포에 오르니 이 가뭄에도 폭포는 장대합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잠시 땀을 식히고 내려 왔습니다.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산을 내려가는 것이 힘든 나를 부축해 주던 오라버니가 "정규선생 집사람(남편)에게 나 혼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농담을 합니다. 농담 뿐 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던가요. 영웅호걸인 당신이 25살에 결혼을 하게된 동기. 정규선생을 닮았다는 부인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야기. 그리고 이어집니다. "우리 단결하여 통일 이룹시다. 후손들에게 금강산을 잘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하갔지만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하자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혹시 북쪽에서는 통일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려가던 발걸음 멈추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에게 물어 보십시오. 우리의 염원은 자나깨나 민족통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지요. 민족이 같이 함께 살아야지 왜 갈라져 삽니까? 분단,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잠시 공연한 질문을 했는가 후회가 되었지만 부러웠습니다.

금강산을 뒤로하고 계곡에 모여 앉아 현대 측에서 준비한 김밥 도시락을 받아 삼삼오오 모여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사람에 맞게 준비했다고 하는 도시락이 모자라 북측에서는 점심을 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김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이 모자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될 것 같아 모르는 척 했지요. 점심을 다 마친 후에 오셨기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함께 점심 드시기로 했잖아요?" 하니 "만날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했다." 고 하십니다. 알맞게 준비한 도시락이 부족했던 것은 김밥 한 쪽에 들어있던 닭튀김과 과일, 전 등으로 술안주 한다고 한 사람이 몇 개씩 받아 갔기 때문이라고 서울에 와서 들었습니다. 도시락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엿듣고는 기분이 우울했는데 어제 만찬부터 우리 모두를 접대하던 주방장 동무, 접대원 동무들이 즉석에서 공연을 합니다.

속초행 유람선 출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고 율동하는 접대원 동무들을 뒤로하고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노래로 우리를 환송하던 동무들이 '조국통일 만세', '6·15 공동선언 만세', '금강산 유월 만세'를 외칩니다. 우리도 가다말고 서서 두 손 높이 치켜들고 함성으로 만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기치 않던 만세소리로 우리는 느닷없이, 남남끼리도 힘든 강한 연대성을 발휘했습니다.

김정숙 휴양소에서 폐회식을 했습니다. 설봉호 출항시간에 쫓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또 한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돈명 변호사는 "행사기간 동안 더 많이 먹이려고 더 많이 잘해주려고 애쓰던 일이 생각난다." 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만찬에서의 막내였던 민족경제 연구소 연구위원이 제게 한마디합니다.

"북과 남이 해 낸 6·15 공동선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기치로서- 진짜- 서로 만나게 되는 계기점이 되어 우리 통일의 목적을 실현하자는 생각입니다. 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북과 남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힘있는 사람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전대에 이루지 못한 통일의 대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몸성히 앓지 마시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잘 지내시고 많은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마음. 간단하고 명료한 이야기. 듣는 나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끄러워졌습니다. 버스가 장전항을 향해 서서히 출발하고 이틀간 갖은 정성을 다 해 주던 동포들이 차창으로 달려와 "잘 가시오", "또 만납시다"하며 외칩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사귀었던 분들의 "정규 선생 잘 가시오", "정규 선생 건강하시오"하는 외침이 들립니다.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았습니다.

설봉호가 속초를 출발하여 아직 북녘이 멀었을 때 평생을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사셨던 한 선생님께서 지는 해를 받아 안고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참한 색시에게 장가를 갔는데 그때 참 기뻤어요. 이제 70이 넘어 개인이 아니라 공인 자격으로 북쪽 형제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거든."

속초 항에서 다시 선생님 뵈었습니다. 많이 피곤 하실텐데 전연 그런 기색이 없으십니다. 선생님 역시 북쪽의 젊은 사람들의 예의바르고 순수한 모습에 무척 감동을 받으셨다며 "이미 반목과 대결은 끝났다. 이제 다시 반목을 부추기는 세력은 반민족적 범죄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장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나는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그들은 내 심장에 조국통일의 이름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통일의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고 아울러 자긍심도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일을 할 차례입니다.

남측 북측 해외 대표 토론문, 남북참가자 명단, 공식적인 행사진행 내용 등은 대토론회 전체 일정을 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에 올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 활기차게 생활하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배려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졸업생 구본승입니다. 저에게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무척 가까웠지요.

93년, 제가 새내기일 때 산행도 가고, 총회자리에도 참석해서 율동도 하고… 대동제 때 간사 누나들과 회장님이 함께 주점도 하고… (법사회학회 회원이예요)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회후배들이 제 자리를 대신하였고, 저는 목요집회, 8월캠페인, 투쟁의 현장에서 회장님, 민가협 어머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아는 분들(창희형, 한수정, 안은현후배…)이 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더욱 좋아요.

후원회 소식지는 법사회학회로 오는 것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받아보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소식지를 읽으면서 감명깊은 내용은 장기수선생님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이런 탄성도 지르고 좋은 말씀은 밑줄 긋고 따로 적어놓고 그랬지요. 물론 이번 호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호 소식지에는 저희와 관련한 사건의 내용이 많이 실려있더군요. 많이 힘 받았고, 결의도 높아졌습니다.(안에서 만나 뵙는 다른 양심수분들이 다들 소식지에 너희들 내용이 실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권오헌 회장님께서 피로누적과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대문경찰서 면회장에서 뵙던 모습이 생생한데 말입니다. 권오헌 회장님!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이 곳에 있는 단국대학생, 졸업생들!! 여러분의 지지·배려의 마음을 받아 활기차게 생활하고 이른 시일내로 꼭 나가겠습니다.

2001년 민족공동행사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저희들도 건강하겠습니다.

2001. 6. 19 구본승 올림

구본승님은 단국대 민주동문회 간사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5월 15일 소위 '단국대활동가조직사건'으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 11번으로 수감중입니다.

"이제 숲이 좋다는 말은 당분간 삼가해야겠다."

본승에게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날이 올 줄이야!

참으로 속상하다. 성실한 너이기에 어느 곳에서도 잘 생활하리라 믿는다. 밝은 향이 묻어나는 너의 편지에 고마웠다.

진보를 외치는 이들은 현실보다는 미래에 더 방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가슴아픈 과거와 복잡한 현실에 자신을 묻히기보다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의 역경을 견디며 자신을 가꾸면서 앞날의 순경을 열어 가는 우리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니 자주 과거와 현실에 묻혀서 괴로워한다. 얼마 전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괴롭힌 이야기가 있다.

다름아닌 우리의 숲에 관한 이야기다. 5월초 역사기행을 다녀왔는데 소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그야말로 '소나무'란다. 일본 일부에만 존재하는 '적송'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소나무는 생선상자로나 쓰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들었다. 하지만, 백두대간에서 자라나는 붉은 몸과 짙푸른 잎을 지닌 소나무는 목조건물의 기둥으로 쓰는 야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소나무는 미송처럼 굴곡을 그리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백년, 이백년이상 아람차게 쭉쭉 뻗으며 자란 것이다.

이런 소나무들이 모여서 만든 숲은 과연 어떤 형상일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 숲의 형상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슬픈 역사에 있다. 식민지와 전쟁의 상처속에서 우리의 백두대간 소나무숲은 모두 잘려나가고, 불타버렸다. 그래서, 기성세대나 우리 대부분이 금수강산의 참숲을 보지 못한 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숲을 보지 못한 체 자란 사람들은 좋은 물과 좋은 산을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제대로 된 금수강산에서 '호연지기'를 키우지 못한 체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라는 여겨졌다. 바로 그것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다.

시원한 아람찬 숲에서 자라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잡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산에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제대로의 금수강산에서 살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왜곡된 환경에서 잘못된 민족의 정서를 느끼며 그것조차 기쁨이라 여기고, 현재의 조국강산을 음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커다란 슬픔을 느꼈다. 왜곡되고 잘못된 민족의 정서로, 잘 모르는 어설픈 민족의 정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속에서 많은 부족함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웠다.

참숲과 같은 우리 민족의 영상을 똑똑히 물려받고, 오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서 미래를 향해 자신의 민족성을 일깨워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강대국중심의 세계화가 넘실거리는 오늘, 진정 민족과 나라로의 호혜와 평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에 우리에게 잘 모르는 민족적 감상이 아닌, 치열한 민족적 각성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감상은 안일과 자족을 초래할 것이며, 각성은 겸손과 수양을 내올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만이 참숲을 보지 못했지만, 미래의 참숲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산의 삶을 성찰하고 많은 교훈을 느껴야 한다. 제대로 '자신'이라는 나무를 가꾸고, 민족구성원의 일부로 참숲을 일구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겠다.

더운 날 건강에 유념해라!

2001년 7월 3일 이창희

이창희님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수습간사이면서, 단국대 민주동문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숲이 좋다는 말은 당분간 삼가해야겠다."

본승에게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날이 올 줄이야! 참으로 속상하다. 성실한 너이기에 어느 곳에서도 잘 생활하리라 믿는다. 밝은 향이 묻어나는 너의 편지에 고마웠다.

진보를 외치는 이들은 현실보다는 미래에 더 방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가슴아픈 과거와 복잡한 현실에 자신을 묻히기보다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의 역경을 견디며 자신을 가꾸면서 앞날의 순경을 열어 가는 우리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니 자주 과거와 현실에 묻혀서 괴로워한다. 얼마 전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괴롭힌 이야기가 있다.

다름아닌 우리의 숲에 관한 이야기다. 5월초 역사기행을 다녀왔는데 소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그야말로 '소나무'란다. 일본 일부에만 존재하는 '적송'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소나무는 생선상자로나 쓰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들었다. 하지만, 백두대간에서 자라나는 붉은 몸과 짙푸른 잎을 지닌 소나무는 목조건물의 기둥으로 쓰는 야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소나무는 미송처럼 굴곡을 그리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백년, 이백년이상 아람차게 쭉쭉 뻗으며 자란 것이다.

이런 소나무들이 모여서 만든 숲은 과연 어떤 형상일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 숲의 형상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슬픈 역사에 있다. 식민지와 전쟁의 상처속에서 우리의 백두대간 소나무숲은 모두 잘려나가고, 불타버렸다. 그래서, 기성세대나 우리 대부분이 금수강산의 참숲을 보지 못한 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숲을 보지 못한 체 자란 사람들은 좋은 물과 좋은 산을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제대로 된 금수강산에서 '호연지기'를 키우지 못한 체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라는 여겨졌다. 바로 그것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다.

시원한 아람찬 숲에서 자라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잡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산에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제대로의 금수강산에서 살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왜곡된 환경에서 잘못된 민족의 정서를 느끼며 그것조차 기쁨이라 여기고, 현재의 조국강산을 음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커다란 슬픔을 느꼈다. 왜곡되고 잘못된 민족의 정서로, 잘 모르는 어설픈 민족의 정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속에서 많은 부족함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웠다.

참숲과 같은 우리 민족의 영상을 똑똑히 물려받고, 오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서 미래를 향해 자신의 민족성을 일깨워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강대국중심의 세계화가 넘실거리는 오늘, 진정 민족과 나라로의 호혜와 평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에 우리에게 잘 모르는 민족적 감상이 아닌, 치열한 민족적 각성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감상은 안일과 자족을 초래할 것이며, 각성은 겸손과 수양을 내올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만이 참숲을 보지 못했지만, 미래의 참숲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산의 삶을 성찰하고 많은 교훈을 느껴야 한다. 제대로 '자신'이라는 나무를 가꾸고, 민족구성원의 일부로 참숲을 일구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겠다.

더운 날 건강에 유념해라!

2001년 7월 3일 이창희

이창희님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수습간사이면서, 단국대 민주동문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그 이름, '양심수'

– 의정부 교도소 덕진에게 –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자꾸만 작아지고쓸쓸해져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징역살이라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몸 불편한 이들의 빨래를 손수해주던 너

뼈빠지게 일하던 노동자들이
쾅쾅쾅 '정 · 리 · 해 · 고'
심장에 쇠못을 박는 통지서를 받고,
삼백육십오일 쉴 틈없이 농사 짓고도
먹고 살 길 없는 농민들이
제 손으로 키운 자식들을 갈아엎고
거리로, 거리로 뛰쳐나오던 날
잘못된 현실에
너무도 정직했던 너의 피는
두 주먹 불끈쥐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

갇혀서 너는
자유를 묶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을 하고
날마다 보리밥을 외롬과 함께 곱씹어야 하는
파란옷의 수인

0.75평 좁은 방
쇠창살이 바스러지도록 움켜쥐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픈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너는 아름다운 사람
자신의 신념과 양심의 결따라
고난도 마다 않고 걸어온
양심수

이 땅에서 양심수로 산다는 것보다
외로운 일은 없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자에게
그 싸움에서 끌려가고 묶인 자에게
만인이 주는 빛나는 훈장 '양심수'

부디 그 훈장이 녹슬지 않도록
너의 안팎을 갈고닦기를 …
끝내 빛 잃지 말기를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조작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정권의 발악입니다

사랑하는 내딸 은주야

이게 웬말이니, 4년 전 1997년 6월말에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연행, 구속시키더니 4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도 똑같은 혐의를 씌워 너를 포함한 9명 회원을 연행했구나.
너가 처음 그랬을 때는 나이도 어리고 판단이 흐려 법적용이 되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엄마는 죽는다고 협박 겸 언또를 했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은주야. 엄마가 부족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나보다. 그 때는 집회도 없었고, 구속자 가족을 만나면 인사 정도였고, 면회 끝나면 직장으로 돌아가곤 했었기에 그 때는 잘 몰랐단다.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엄마가 부담스러워 집에도 못있던 너...

(중략)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쪼록 용기 잃지 말고, 힘내라.
9명이 석방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다. 아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석방된 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과 이질성 위염 8주 진단이 나왔는데 엄마는 참 걱정된단다. 건강해다오..

7월 6일 사랑하는 엄마가...

[구속된 곽은주 회원 어머님의 편지 중에서]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 구속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각자의 집에서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이었습니다. 연행된 회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부터 공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간부들이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보안수사대는 서민노회 단체 결성 혐의, 100종의 이적 문건 제작 · 소지 · 배포, 오트론 투쟁지원 등과 대우자동차 노조 불법 집회 등에 다수 참가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근거를 강압적으로 들이대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28일 9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찰의 도둑질과 도청…

4년 전「참세상을 열어가는 노동자회 (참여노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 5명을 구속했던 데에 이어,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는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사무실에 수시로 들어와서 유인물이나 서류를 훔쳐가는 것은 예사였고, 지난 2월부터는 전 회원의 전화와 핸드폰이 도청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4년 전 '참여노련' 사건과 연계시켜, 동일한 조직으로 몰아 이적단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6개월 · 18개월 된 딸아이의 울음

구속된 회원 중에는 각각 16개월과 18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가 있습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속된 회원 중에는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회원

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경찰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이런 뻔뻔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작사건의 배경과 본질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명줄을 걸고있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서 이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중 5명은 4년 전「참세상을 열어가는 노동자회 (참여노련)」회원으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 회원은 4년 전에 연행하러 왔던 형사가 다시 이번에도 체포영장을 들이대며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혀가 내둘릴 지경입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업사업장 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니, 이제는 운동단체 회원들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무차별적인 연행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인권'과 '민주'를 그렇게도 강조해온 김대중 정부가 정말 왜 이러는가?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는 구로공단 지역에서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는 지역의 신망있는 노동운동단체이다. 더구나 이번에 연행된 9명의 회원들은 민주노총 간부이며, 민주노동당 당원들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현실 속에서 이제와서 그간의 활동을 문제삼아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구속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속자 명단

최석희	38세, 서민노회 대표
문재훈	38세, 서민노회 정책국장
김봉림	38세, 서민노회 전대표
문종찬	36세, 서민노회 조직국장
김소연	32세, 갑을전자노조 위원장, 금속연맹 서울본부 부본부장
최미선	32세, 전 동해노조 사무국장
김영신	33세, 전 태광하이텍노조 조직국장
김순희	31세,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중부지구 협의회 사무국장
곽은주	27세, 마마노조 부위원장

모든 노동자와 모든 운동단체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최근의 공안탄압은 결국 김대중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강력한 퇴진투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석방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는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기 이전에 공안탄압부터 중지하고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안탄압분쇄와 서울민주노동자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 글은 '공안탄압분쇄와 서울민주노동자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유인물 내용의 일부를 퍼온 것입니다.

9기 한총련 출범식 기간 농성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을 하고 나서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명동성당 농성단

참으로 오랜만에 명동성당을 나섰다.

정해진 공간에서 벗어날 줄 모르던 수배자들이 마침내 얼마동안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미리 밖에 나섰을 때 느낌을 생각했을 땐 모든 것이 정겹고 더없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나섰을 때 우린 기쁜 마음에 앞서 세상 속에서 동떨어진 듯한 낯선 느낌과 뭔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한 동안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로가 "야, 오랜만에 나오니 정말 좋다. 그렇지?" 하고 말했지만 서울의 어느 식당에서 주린 배를 채울 때까지 어색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해지는 얼굴들.

많이 걸을 수 있다는 것, 막힘 없이 뚫린 공간들, 초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좋았다.

출범식 준비를 위해 한양대로 들어가기 전 우린 밝은 웃음 속에 뻥 뚫린 거리를 거침없이 걸었다. 조심스럽게 한양대에 들어섰다.

5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열린 전국의 백만 대학생의 단결과 축제 · 투쟁의 장 한총련 출범식.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변화된 정세와 그로 인한 청년학생운동의 요구로 볼 때 이번 9기 한총련 출범식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하반기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운동의 대중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백만 대학생들에게도 의미 깊은 자리였다.

며칠을 피곤함을 뒤로한 채 밤을 새며 환영 플랑 쓰고 무대를 쌓고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젊음의 활기가 넘치고 대학은 출범식 열기로 가득 찼다.

우린 한양대학교 식구들의 배려로 대학 노천극장 뒤편에 천막을 치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물도 끌어왔다. 출범식 참여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면서 밤에는 농성장에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 오랜만에 보는 동지들과 함께 하늘에 하얀 연기 가득 채우며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임시총회 준비, 주점공간 및 박람회장 선전물준비, 주점 제반 준비 등 수배자 세 사람의 힘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우린 배짱 좋게 계획을 세웠다. 출범식을 본때 있게 준비하겠다는 세 사람의 결의도 있지만 지난 2월 혹한 속에 함께 어려운 투쟁을 힘차게 벌였던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범식이 임박해지고 해야 할 일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많았다.

이때 민가협 어머님들, 양심수후원회, 구로 청년회, 한양대 옛총학생회 집행부원들 등 여러 동지들이 손발을 걷어 부치고 함께 나섰다. 주점에 필요한 제반 음식들, 식기들… 어려울 것 같았던 물품들이 금새 준비되었다. 주점 주변 단일기와 큰 걸게 그림도 걸고 모형감옥도 설치했다. 박람회 장소에 선전물품도 보내고, 한총련 학부모 모임도 빼 놓은 것은 없는지 점검했다.

출범식이 시작되고 주점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다.

그동안 평생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분투 해오신 각계 선생님들과 전국에서 출범식 참여를 위해 달려온 동지들... 소중한 분들이 잊지 않고 주점을 찾아 주셨다.

한총련 학부모님들 모임 진행 등에 분주히 다닐 때 그동안 농성에 함께 해준 동지들이 며칠동안 날을 새면서 함께 해주었다.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 학부모 모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주점에 손님도 많고 덕분에 농성기금도 적지 않게 마련됐다.

입는 거, 먹는 거 부족하진 않는지 늘 생각해주는 동지들, 명절이나 기념할 만한 날이면 모든 일 제쳐 두고 함께 해 주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 정치수배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 있는 동지들.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에 420여 일이 넘게 해온 우리의 농성은 하루하루 아름답고 뿌듯하기만 하다.

신념 꺽이지 않고 40년 옥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고 윤용기 선생님 약력

1926년 8월 2일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연리 614번지에서 출생
1935년까지 한문공부하심- 자치통감 1권까지 마침
1936년부터 부모님도와 농사일 하심
1942년 서봉순님과 결혼
1944년 일제 강압으로 '육전대' 입대준비 군사훈련
1945년 8·15해방을 맞아 농민조합 등 사회운동에 나섬
1947년 토지개혁 등 집회에서 "토지는 농민에게!" 등을 외치다 여러 차례 연행·구속
1950~59년 당활동을 하다 인민군과 함께 북녘으로. 이후 군당 도당학교 나오심. 원산트러스트소속 주택건설 도로공사 등 전후복구사업하심. 인민군당 지도원.
1959년 7월 3일 남녘 고향으로 왔다가 다음 날 체포, 최종 국가보안법 등 위반협의 무기선고.
1998년 3월 13일 40년 옥고 끝에 형집행정지로 비전향 출소할 때까지 감옥에서 동의학, 침구학 등 독학연구 동지들 치료.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송환때 북녘으로 가심.
2001년 6월 13일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뇌혈전으로 운명하심

6·15남북공동선언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던 금강산에서 참으로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13일 오후7시, 40년 옥고를 치루고 비전향으로 출소하셨다가 지난 해 9월 2일 북녘으로 가셨던 윤용기 선생님께서 뇌혈전으로 운명하셨다는 슬픈 소식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26년 8월 2일 강화군 선원면에서 아버님 윤정태님과 어머님 오일순님 사이에서 가난한 농민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학교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친척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한문공부를 9세때까지 자치통감 1권을 마치셨습니다. 10세부터는 아버님을 도와 농사일도 하셨고, 일제의 식민지수탈정책으로 농촌 농민사회가 모두 빈곤해지면서 16세부터는 서봉순님과 결혼을 하시고 집안 살림을 맡아하시기도 했습니다. 패망의 전황이 이어지면서 일제는 선생님을 '육전대'로 보내려고 강제군사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45년 8.15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방공간에서는 청년·사회운동, 농민운동을 하셨고, 토지개혁집회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등 시위를 하다가 여러 차례 연행, 구금당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인민군 입성과 함께 당 활동과 내무성 계통에서 활동하시다가 9월 후퇴때는 경기도 당 유격대 성원으로 척후와 후방 등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1952년 강원도 리인민위원회 서기장, 안면군당 지도원, 세포국영농장 초급지도원, 리당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군당, 도당 간부학교에서 간부수업도 받으셨습니다. 뒤에 원산트러스트소속 주택건설 도로공사 등 전후복구사업을 하시다가 1959년 고향 강화에 오셨다가 다음 날 7월 3일 체포, 국가보안법 등 위반협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0년 옥고를 치루는 동안, 강제전향공작에서 온갖 협박, 고문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계시다가 1998년 3월13일 형집행정지로 비전향출소하셨고 2000년 9월2일 북녘으로 가셨으나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뇌혈전으로 평생 염원 통일조국 그 날을 보시지 못한 채 동지들의 애도속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삼가 선생님 영전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모두의 슬픈으로 명복을 빕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1년 6월

01 서울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일만여명의 한총련 소속 학생들과 범민련, 민가협 등 민족민주운동단체의 축하속에 9기 한총련출범식 성사를 위한 서울지역 시민 · 청년 학생 연대한마당과 개막제를 열음.

민조노총 노조원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생법안 입법촉구와 구조조정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로 행진하다 제지당함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대 총선 당시 동대문을구 후보로 출마한 허인회 후보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영구 후보쪽의 위장전입을 인정, 선거무효 선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명동성당 정치수배농성단과 함께 한양대 9기 한총련출범식 기간동안 먹거리 장터를 열어 정치수배농성단 기금마련에 발벗고 나섬. 이창희,송창학,이정태,이승미,변의숙,곽인석,이득행,양계숙,장재영,신현익,주경임,안은현,한수정,남보현,김호,이정규,소수영,조경래,김재명 회원 등이 함께 함.

02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의장 옹립식)이 한양대 대운동장에서 한총련 소속학생 일만오천여명과 범민련,전국연합,민가협 등 사회단체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됨. 9기 한총련 의장으로 옹립된 최승환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6.15~8.15까지의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6.15 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MD반대, 학원자주화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표자회의에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결합방식 결정, 민족통일대토론회 추진 결정

03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총련 등 일만여명이 모인 가운에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주체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미국의 양민학살 사죄 배상, MD구축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고 종로까지 거리행진.

통일연대, 민화협, 7대종단 등으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 10여명이 6.15공동선언 첫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등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남.

04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84년 청송교도소에 복역중이던 박영두(당시 29세)씨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함.

05 울산지방경찰청은 새벽 '울산만 작전' 이란 이름으로 30개중대 3600여명의 경찰력을 효성울산공장에 투입하여 12일째 파업농성중인 조합원 500여명을 강제해산, 국일선(34, 여, 민주화섬연맹 울산본부 사무국장) 등 8명을 연행, 구속영장신청하고 정기애(33, 노조교선부장)씨 등 6명과 거리시위를 벌인 노동자 200여명을 강제 연행하여 조사중

06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남측)와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준비위원회'(북측)는 4~5일 동안 금강산 온정리 금강원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6.15~16일 6.15공동선언 첫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와 금강산 산행 등 남과 북에서 대표 각200명, 그리고 남측에서 200명 참관자가 함께 하기로 합의.

07 민가협 380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9기 한총련대의원 이경민 구속사례: 경기대 한민희 학생발표, 통일시대 애국청년회회원 노봉석 구속사례: 송명진 통일시대애국청년회 사무국장 등 발표

민가협 어머님들과 수유리 박용길 장로님을 찾아 뵙고 문호근 선생 타계로 외로우심 위로해 드림.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폭력, 용역폭력, 구사대 폭력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08 양심수후원회 제13차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림. 6월 활동 보고와 재정보고에 이어 6.15 민족공동행사 금강산 대토론회 양심수후원회 참가단 협의(권오헌,이정규). 재정문제 등 협의

민주노총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등 노조간부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부터 연맹소속 23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

09 제1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준비위원회'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 유가족과 민가협 등 사회단체 성원 5백여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엄숙히 진행됨. 이창희, 송창학, 한수정, 안은현, 정형근, 남보현 회원 등 참가함.

10 6월 민주항쟁 14주년 행사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 22명)와 한겨레 신문 공동주최로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6.10 민주항쟁 14돌 기념 제5회 시민달리기대회 '행진6.10'이 단체,개인 등 7천여 시민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 됨. 최범림, 송창학, 주경임, 한수정, 이창희, 남보현, 변의숙 회원 등이 참가함.

11 4.19 혁명 후 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조사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피살자 명부, 진상조사위 속기록 등에 의하면 영 · 호남, 제주도 등에서 양민 8522명이 군 · 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민주당 전갑길 의원이 밝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등 저지를를 위해 12일부터 125곳 5만여 노동자가 연대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

12 민가협 운영위원회: 6.15 1주년 기념 민족대토론회에 참

가하는 문제 (임기란, 서경순), 이유진 귀국모임 참가문제, 인권협 존속여부 문제 등 협의

-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수도권지역 노동자 만여명을 비롯, 전국 14곳에서 동시다발 규모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실시, 모성보호법, 언론개혁법 등 민생법안을 촉구하며 거리행진
- 민주노총은 120곳 3만 여 노동자가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 경찰특공대는 효성 울산공장 파업 강제진압에 항의하여 40m 옥탑에서 8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최만식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지도부 8명을 강제연행
- 후원회소식지 발송작업(국내 993통, 국제15통), 남보현, 한수정, 이창희, 장재영, 김재명, 양계숙, 변의숙, 김숙희 회원 등이 함께 함.

13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임원 연석회의(상임본부장,공동본부장,고문,집행위원회 각 집행위원장),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금강산 실무회의내용 등 발표. 14일 오전 6시 서울출발 등 결정.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산하 전국 27개 언론사 노조원들은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파업, 노조원 1000여명은 태평로 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집회를 갖고 세무조사 결과 공개, 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공동배달제 실시, 신문사 무능경영진 퇴진, 정부소유 언론사 소유개혁 등을 촉구, 이들은 외국언론인 대표 20여명과 함께 명동성당까지 행진
- 민족공동행사 남북실무회담, 금강산에서 2차 모임, 양측 기조발제문 검토 및 확정, 세부일정 확정.

14
- 381회 목요집회, 감옥에서 온 심재춘씨 편지낭송: 부인 이문희씨, 범민련 나창순 부의장님 감옥투병사례: 범민련 서울시 부의장 문재룡님, 6기 한총련의장 손준혁 연행사례: 홍성희 덕성여대학생 등 발표함.
- 민족통일대토론회 남측 대표단 가운데 김선분(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전국연합),최경남, 김창모, 황선(한총련), 이경원씨 등 6명 당국으로부터 불허통보 받음, 속초항에서 불허조치에 항의, 남측대표단 426명 속초 출항, 오후 8시 장전항 도착, 15일 금강산 여관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 대 토론회 :- 남과 북 해외 공동보도문, 일본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 채택, 남북대표단 동석연회, 평양모란봉 교예단 교예공연 관람(온정각교예공연장), 각 부문별 대표단 간담회, 16일 남북대표단 함께 금강산 산행(구룡폭포까지), 환송연, 환송행사(김정숙 휴양소), 장전항 떠남, 16일 오후 8시 속초항 도착
- 국제기자연맹(IFJ)은 올림픽 파크텔에서 나흘째 총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선언', '한국언론발전을 위한 결의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

15
- 6.15공동선언 한돌을 맞아 통일연대 등 민족화해한마당, 겨레대합창 등을 여의도공원에서 진행

16
- 대학로에서 '민족자주,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2001 2차민중대회', 민주노총, 한총련 등 3000여명 참가하여 열림. 종로까지 거리행진.

1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월 산행을 수락산에 함. 당고개역에서 능선을 타고 수락산 정상앞까지 올라가서 수락산역 쪽으로 내려옴. 김수룡, 안학섭, 김교영 선생님들과 신현익, 이득행, 양계숙, 이정태, 송창학, 이창희, 이상희, 남보현, 이현태, 김재선, 변의숙, 정형근, 구준서, 신현부 회원 등이 참가함.
- 김호현 운영위원과 후원회원 안병길 목사님이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을 찾아 뵙고 마침 문병차 와 있던 인천지역 정순덕 선생님 후원모임회원 2명과 선생님을 모시고 나와 바람을 쏘이고 특별음식으로 점심을 함께 함.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기분이 매우 좋으셨다고 하셨음,

18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종로구 한국일보사 앞에서 언론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정간법 개정', '정부소유 언론의 소유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며 문화관광부 청사까지 행진
-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성재 위원장 등 조종사노조 간부 4명을 구속

19
- 민가협, 민변, KNCC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단체 공동주최로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관련 인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갖고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 철회,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시도 중단 등 촉구
- 동국대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 성사 서울지역 보고 및 환영대회'가 통일연대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림
- '정기휴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25일째 노상농성을 벌여온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에 대해 경찰이 16개 중대 1800여 병력으로 파업현장을 덮쳐 위원장 등 301명 전원을 강제연행,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레미콘 차에 들어가 항의하자 레미콘 창유리를 모두 깨며 70여대와 승용차 300여대까지 부당강제견인해 가다.
- 7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병원 2층 로비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선택진료제 중단, 의료의 질 개선 등을 주장

20
-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8~6.18일까지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 '23개 언론사에서 1조 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세금 5,056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고 밝힘

2001년 6월

- 종로국세청 앞에서 '신문개혁 국민행동' 회원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완전공개를 촉구하며 시위

21
- 민가협 목요집회 382회 - 여는 말, 임기란 상임의장, 손준혁군 아버님 암투병사례: 손준혁 대책위,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곽은경 간사, 민중대회참가자 무리한 구속사례: 허승영 경희대 학생,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촉구 및 양심수석방촉구: 단국대 총학생회장 이산라 학생의 아버님, 출소인사: 이경민 경기대 총학생회장 등 발표.
- 민가협 회장님과 회원들, 대구에서 올라온 손준혁대책위 성원들과 함께 민주당사 방문,담도암으로 투병중인 손준혁 아버님 위급상황 등 관련 손준혁(한총련 4기 의장) 즉각 석방 촉구, 이어 목요집회 참가 및 대책위 성원들 명동성당 농성단 격려방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언론사들이 97년 4월~2001년 4월까지 4년간 5434억2천만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로 510억 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거나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들 언론사에 24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함

22
- 낙성대 '만남의 집' 식당체계 등 관리와 관련 '도우미' 요청(구청) 등 김재원님께서 1주 월, 목요일 오시기로 함.
-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김학전 건국대 교수 등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언론학자 100인 선언식' 을 갖고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회언론발전위 설치,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촉구
- 충북 영동군청에 모인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73명은 '미국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계획적인 살육행위를 인정할 것, 손해배상금의 조속 지급, 희생자 인권회복에 정부도 자주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고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장학금 거절.

23
-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명동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명동성당 토요집회, 이동진 농성단원사회로 광운대 인문사회대학 김남훈 학생회장이 한총련탄압규탄연설, 손준혁 석방 대책위 편지낭독(이득행 양심수후원회원), 단국대 자주대오 조작사건 규탄(단국대 민주동문회 김근영), 6.15공동행사 참가 저지 규탄(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촉구 연설(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 이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 안은현, 곽인석, 이득행, 변의숙, 이창희, 김숙희, 양계숙, 이승미, 송창학 회원 등 참가.
- 연세대 대강당에서 '6.15공동선언 실현, 내정간섭 외세배격, 미군학살 진상규명 전민족대회' 를 전민특위 남측본부와 통일연대 공동주최로 2000여 사회단체성원, 청년학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 대회사: 이종린 전민특위남측본부장, 정치연설: 오종렬(전국연합), 정광훈(전농), 최승환(한총련)과 6.15공동선언기념 국민대토론회 공동보도문(한상렬),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성사, 미국학살만행 남북 해외 공동선언문(권오헌) 낭독 등이 있었음. 송창학, 한수정, 안은현, 이창희 회원등 참가함.

24
- 양심수후원회 제2회 시사강좌가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열림, 권오헌, 이정규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참석보고, 이정규운영위원의 영상보고 등 이득행, 양계숙, 변의숙, 남보현, 송착학, 이승미, 이현숙, 소수영, 이창희회원 등과 방성일, 조유일 안산지역 청년 등 참가)
- 오랜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신현칠 선생님께서 며느님을 보셨습니다. 아드님 신범순 님이 신부 유진아님을 맞아 양가 부모님과 친지, 통일광장 선생님 등 많은 축하 손님의 축복을 맏으며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코리아전쟁(6.25)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규명하는 국제민간법정인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 이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와 참전 주요나라 반전평화단체 등 공동주최로 미국 뉴욕 인터처치센터에서 열림. 이날 재판에서는 〈램지 클라크〉 전 미 법무장관과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등 6명의 공동검사단과 세계 18개국 26명의 민간인 배심원들이 기소와 평결을 맡았고 재판관은 〈지텐드라 샤르마〉 전 인도 대법원장 등 2명이 맡았음 - 클라크 수석검사는 남북민간단체가 공동참여한 기소장을 통해 "미국은 코리아전쟁 당시 300만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1945년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세계인권헌장과 조약, 각종 국제조약 및 협정, 미국과 남북의 법률 등을 위반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고 밝힘. 벨기에의 〈미치도우먼〉 등 26명의 배심원들은 '각종 증언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945년 〈해리트루먼〉 이후 〈조지 부시〉에 이르는 모든 미국 대통령과 국무·국방장관, 각급 정보기관의 책임자 및 주한미군 사령관들에게 죄명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류적 전쟁범죄행위죄' 등 19가지 항목에 유죄를 선고.
- 전민족대회의 참가자들은 용산 미8군앞 미군범죄규탄집회를 가짐.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무차별탄압을 하였으나 집회를 강행, 미군학살만행 등 범죄규탄.

25
- 미국 뉴욕 본부앞에서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소속 회원과 해외동포 100여명은 '코리아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대회' 를 열고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유엔이 앞장서 전쟁당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규탄

26
-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훈 부장판사)는 '나는야 통일1세대' 의 이적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외대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직원 김지화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 단국대 이른바 '활동가조직' 조작사건 첫재판, 변호인의

병합신청으로 7월 5일로 연기

- '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는 워싱턴 디시 의사당 앞에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고 '코리아 전범재판' 평결문을 백악관에 전달

27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김동훈 사무처장은 '1950년 8월 10일 경북 칠곡군 신동고개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200-300여명을 학살했다는 미군쪽 극비문서를 입수했다' 고 공개

28 - 민가협 383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 구속사례: 서울민주노동자회 강미 회원, 서울민주노동자회 구속자 곽은주씨께 보내는 어머님 편지낭독: 고순복님, 소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구속, 기소사례: 소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홍사엽님 등 발표

29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5차 대표자회의가 기독교회관에서 있었음. 대표자회의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등 5개 단체의 신규가입을 승인하고 민족대토론회 평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활동에 관한 방침 결정

- 민가협 인권강좌가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귀국한 이유진씨를 강사로 진행.
- 국세청은 조선, 동아, 국민일보사 등 세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중앙, 한국, 대한매일신보사 등 세 신문사는 조세포탈혐의로 당시 경영진 5명과 법인을 함께 고발. 6개 언론사의 추징세액은 조선 864억 등 모두 3,048억원이었음.
- 태평로 언론회관 앞에서 신문개혁 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 공동주최로 비리사주처벌과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언론개혁 6월 선언' 을 발표
- 14일부터 공안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이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수배해제,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주5일제 근무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7월 5일 2차총파업을 벌이겠다며 단식농성 돌입

30 - 옴시롱 감시롱 6월 모임이 권오헌 회장 집에서 열림. 7월 21일 새만금지역으로 환경기행을 가기로 결의를 하고 금강산 대토론회 상황 등 비디오 감상시간을 가짐.
- 지난주(6월 30일) 토요캠페인은 "통일시대 거스르는 국가보안법 유지발언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제로 진행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단국대민주동문회, 정치수배해제농성단 등이 참석함. 정치수배해제농성단원 이동진님의 사회로 진행된 토요캠페인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유지발언 이회창 총재 강력히 규탄한다" : 정치수배농성단 유영업님, "서울민주노동자회에 대한 이적규정과 탄압을 규탄한다" 의 민주노총성명서: 전국여성노조 김정남님, 김대중대통령님께 드리는 송용한 어머님의 탄원서: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한수정님 대독, 손준혁군 석방 투쟁 진행현황 및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단국대 민주동문회 강윤경님의 촉구문 낭독, 소위 '단국대 활동가 사건' 조작에 대한 편지글: 안은현님,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화합 대사면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촉구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혁익님 등 발표. 마지막으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곽인석님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 영치금 135명에게 발송
- 말지 4권 발송
- 출소장기수선생님과 양심수가족에게 지원금 보냄.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 7월 2일 12시 10분경 김난열 선생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북송을 희망하시는 출소 장기수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된 김난열 선생님은 출소 이후 당신의 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며 외로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인천이며 전쟁전후로 이북에 올라가 사시다가 57년 남파하여 59년 검거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아 66년에 가석방되셨습니다. 이후 대구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런 선생님께서 복막염과 만성골수염으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5월 2일 대구에 있는 곽병원에 모셔 어려운 수술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염증을 제거하려 담당의사분께서 애쓰셨지만 워낙 염증이 몸 전체로 퍼진 상황이라 손댈 수 있는 부분만 제거해 내었었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지 못한 까닭인지 수술 이후에도 김난열 선생님은 매우 위독한 상황이셨으며, 병마와 투병해 오시던 중 운명하셨습니다. 장례식은 곽병원 영안실에서 치루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0여년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김태룡선생님이 29일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연루된 사건으로 고인도 3년 6월의 옥고를 치르셨고 나오신 뒤에 아드님과 따님(김순자, 민가협 회원)의 석방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나 담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9일 오후 7시 현대중앙병원에서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김경옥)은 가족과 친지들의 애도속에 7월 1일 장례식장에서 발인, 용미리 시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